

이명(耳鳴)

이종만

철모르는 귀뚜라미라며 옷장까지 뒤졌다

행방이 묘연했던 너
내 귀안에 살고 있음을 훗날 알았다

나와 끝까지 함께 간다는 너
나무랄수록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너

이름만 들었지, 너를 몰랐다
울음조차 참는 나의 일부가 된 너
울고 싶을 때, 너라도 실컷 울어라

이명(耳鳴)은 바깥 세계에 소리가 없는데도 귀에 잡음이 들리는 현상이다. 청각 기관의 손상,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 혈관의 기형 등이 원인된다.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찾고 또 찾아도 보이지 않는 음원이다. 귀가 고장 난줄 모르고 귀뚜라미만 원망했었다.

어찌 보면 참고 견뎌야 할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화자가 다하지 못하는 울을 일을 자신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것에 위로하는 내면아식의 흐름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털어놓는 독백을 시로 승화시키고 있다.(윤제철)

건배(乾杯)풍습 엿보기

오 대 환

누가 술을 처음 만들어 먹었을까? 어떻게 곡식이나 과일로 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을까? 전문가들 말로는 원시시대 야생포도넝쿨 밑에 움푹 패인 바위에 떨어진 포도알이 자연 발효되어 술이 된 것을 발견한 인간이 연구 끝에 술을 만들어 먹었을 것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 신기한 음식을 처음 만들어 낸 사람은 얼마나 우쭐했을까 상상해 본다. 마시기만 하면 기분이 몽롱해지니 아주 옛날 그 기술을 처음 가졌던 사람은 꽤나 비싼 대접을 받았을 것 같다. 사람을 홀리게 하는 술의 독특한 매력 때문에 아마도 술의 역사는 인류역사와 그 길을 같이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중동의 아랍사람들처럼 종교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나라 말고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 술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서 마시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서 마신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으면 맨송맨송해서 심심하다며 술을 마신다. 술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이래저래 인류의 오랜 친구다. 종교나 건강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사람 말고는 술이 먹고 싶을 때 무슨 이유든 같다 붙이면 그럴듯한 빌미가 된다.

특히 귀한 손님을 접대하거나 뜻있는 행사에서는 술잔을 가득 채우고 건배를 한다. “건강을 위하여” “사업번창을 위하여” 또는 “돈독한 우의를 위하여” 건배를 한다. 필자가 코 큰 사람들의 건배 풍습까지는 말할만한 입장이 못 되지만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 한중일 3국의 건배풍습에 대해선 말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글자 乾杯를 “건배” “관배이” “감빠이” 하고 조금씩 다르게 읽는 것처럼 술자리 건배 풍습 또한 미묘한 차이가 있다.

어느 나라든 회식자리에서 어른이 건배제의 하고 나서 술자리가 시작되지만 그 어른의 역할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는 보통 좌장의 건배가 술자리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처음 몇 마디 좌장이 분위기를 잡지만 그 이후는 격식이 있다기보다 대체로 자유스럽다. 일본 역시 특별한 자리 아니면 처음 몇 번 간빠이 하고나면 술잔도 대화도 삼삼오오 자유스럽다. 하지만 일본에서 좌장의 역할은 그 시작보다는 자리를 마무리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술자리가 끝날 때면 으레 “자, 오늘 즐겁게 잘 마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세 번 친다. 여간 해선 장소를 옮겨 2,3차로 이어지질 않는다. 맺고 끊는 맛이 있다. 반면 우리는 술자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를 때가 많고 1차 뒤 2,3차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회식자리는 격식을 차린 색다른 맛이 있다. 좌석부터가 원탁이다. 출입구 맞은편에 좌장 또는 초청자가 자리하고 그 오른 쪽 왼쪽으로 번갈아 가며 자리 서열이 엄격하다. 회식이 시작되면 참석자 모두가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건배를 제의하며 그 자리에 어울리는 덕담을 한 마디씩 하는데 좌장은 사회자로서 임무에 충실하다는 느낌

이 든다. 자리가 끝날 때까지 질서가 정연하다. 술자리지만 분위기가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는 느낌이다.

주법도 조금씩 다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첨잔이 일반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잔을 비워야 술잔을 채운다. 중국에서는 술잔을 들 때마다 동석한 사람에게 권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비교적 자유롭게 각자 알아서 마신다. 과거 우리는 너나없이 술잔 돌리기에 익숙했었지만 언제부턴가 그 풍습은 슬며시 사라졌다. 7,80년대까지만 해도 상사의 권주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나 다름없었기에 맨 정신에 오는 술잔 거절했다가는 과실죄로 몰렸던 시절도 있었다. 술 잘 먹는 놈이 일도 잘한다며 비교적 술에 관대한 시절이 있었다. 술잔 돌리기 풍습이 사라진 것은 여러모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다. 세월 따라 술자리 분위기도 민주화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술자리에서 권주(勸酒)의 강도(強度)는 중국, 한국, 일본 순서인 것 같고 권주의 압력은 알코올도수와 비례하는 듯하다. 좌장의 역할 또한 중국이 가장 확실한 듯하며 일본은 끝맺음에 역할이 있고 우리는 그 중간 정도가 아닐까 싶다.

대중이 마시는 술의 종류도 꽤 다르다. 중국술은 보통 4,50도짜리 독한 술인데 우리의 소주는 그 절반 20도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소주조차 독하다고 물에 타서 마신다. 소위 미즈와리를 한다. 일본 과전근무시절 소주를 물에 타 마시는 일본 사람들 따라 일본식으로 소주를 마셔봤다. 처음엔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닌 미미한 맛에 어색했지만 같이 어울려 지내다 보니 나 역시 그 맛에 익숙해졌던 경험도 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술을 마시면 말이 많아진다. 술이 있는 곳에 활기가 넘친다. 어떻게 보면 술은 대화 촉진제이기도 하다. 때로는 촉진을 지나쳐 감정폭발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술자리에서는 의견교환이 활발하다. 그래서 예기치 않은 정보를 술자리에서 얻을 때도 많다. 이른바 비공식적 자리에서 흘러지는 이삭줍기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술자리를 만들고 마음 약해진 틈을 비벼 알고 싶은 것 얻어내는 전략을 쓰기도 하다. 술자리 미인계는 동서양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써먹어 온 수법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의 술자리 분위기가 자유스러운 반면 비밀을 지켜내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술자리 풍습도 중국과 일본 사이 그 중간쯤 되는 것 같다. 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한반도가 자리 잡고 있으니 술자리 풍습도 위치를 같이 하는가 보다. 먼 옛날 글자(漢字)도 우리를 통해 바다를 건너가더니 일본의 대륙침략 또한 우리를 밟고 저질러졌다.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것은 없다. 안에서 싸움질에 몰두할 때 저들은 길을 냈고 우리는 피눈물을 흘렸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는 한반도가 열쇠처럼 생겼다고 하며 우리 미래를 밝게 예견하기도 했다. 대륙과 대양 세력 사이에서 우리가 열쇠 노릇을 하려면 그 두 세력보다 나은 것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하고 생각해 보니 술자리 풍습에서도 빼아픈 역사의 틈새가 보이는 듯하다.